

어린이 책꽂이

▲트럼펫 부는 백조, 루이=살롯의 거미줄의 작가 엘린 브록스 화이트의 장편동화, 태어날 때부터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지만 그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백조 루이와 루이를 도와 주는 샘의 아름다운 우정이야기가 감동을 준다.

(주니어랜덤·9천원) ▲맞수 한국사(전2권)=한국사의 운명을 바꾼 최고 맞수 24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역사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을 알려준다. 연개소문과 김춘추, 공예와 왕건, 이성계와 최영, 원공과 이순신, 민비와 대원군 등이 소개돼 있다.

(글레마 주니어·1만1천원) ▲이슬이아기=세계 여러 나라의 민담이나 설화, 동화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이슬의 우화들이 실려 있다. 늑대와 두루미, 사자와 당나귀, 양 가족을 쓴 늑대 등 유명한 이야기들이 화려한 그림과 곁들여져 그림책의 진수를 보여준다.

(어린이 작가정신·1만2천원) ▲한글 우리말을 담은 그릇=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인 한글의 의미와 창제원리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풀어 썼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자생활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설명돼 있다.

(책읽는곰·9천500원) ▲맨 처음 배우는 그림세계사=세계의 역사를 처음 접하는 7~9세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 기원전 3만 년 무렵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연대기로 엮었다.

(청림아이·1만2천원)

그들은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섰다

조선의 승부사들 서신해 지음

‘인생 승리’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장영실(1383년 무렵~?)은 그는 중국인 아버지와 관비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로 어려서부터 물건을 만드는 솜씨가 뛰어나 태종 때 공정의 공인(工人)이 됐다. 세종 때 천문기구인 혼천의를 만들어 노비에서 면천된 장영실은 이후 측우기, 해시계, 간의대, 규표 등 각종 과학기구를



경기도 성남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앞에 있는 장영실 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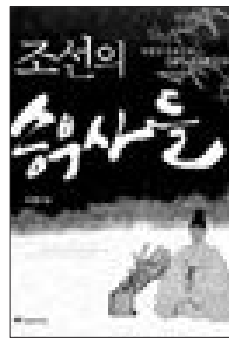
만들어 그 공으로 승차(승진)를 거듭해 종3품 대호군에 이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옛 문헌의 국역에 전념해온 서신해 씨는 ‘조선의 승부사들’에서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신분으로 태어났으나 변함없는 노력과 시대를 읽는 안목,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력으로 ‘인생 승리’를 이룬 조선 최고의 전문가 10인의 인생지도도를 펼쳐 보이고 있다.

천민으로 태어나 한성부판윤이 된 상례(喪禮) 전문가 유희경(1545~1636), 서울로 태어나 어의가 된 의원 허준(1539~1615), 삼정승 육판서가 두루 찾은 박물학자 황윤석(1729~1791), 소아마비 장애를 딛고 조선 최고의 출판전문가로 우뚝 선 장흔(1759~1828),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 천문학 대가가 된 김영(1749~1817), 그림 만류나 인간다웠던 목민관 김홍도(1745~1806년 무렵) 등이 그 주인공들이다.

조선은 엄격한 신분제 사회로 자신의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고 한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거나 ‘하늘의 별 따기’였다. 이런 치열한 삶을 두고 저자는 “남이 되고 일어사기를 계속하며 한 때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인생의 승리를 이룬 진정한 승부사들”이라고 말한다.

양반집 하인으로 자란 송경운(?~?)은 9세 때 처음 비파를 배웠는데 그 솜씨가 가히 신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의 솜씨에 대한 소문은 전국 모든 사람에게 퍼져 유행어를 낳기도 했다.



어떤 일을 잘했을 때 으레 그의 이름을 넣어 “어때? 송경운의 비파만 해?”할 정도로 조선팔도에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정묘호란 때 전주(완산주)에 정착한 그는 20년을 한결같이 남녀노소,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청중이 만족할 때까지 정성껏 비파연주를 들려주어 만민에게 칭송받았으며, 인품 또한 훌륭하여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만산주 전체 사람이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고 전해진다.

순조 시절 주로 활동한 국수(國手) 정운창(?~?)도 이러한 부류다. 보성 사람으로 어린 시절 병약했던 그는 사촌 형의 권유로 바둑을 처음 배웠는데 10여 년 동안 집밖에도 나가지 않고 바둑에만 열중하다더니 홀연히 바둑의 묘한 이치를 깨닫게 된다.

그 후 당대 바둑으로 이름난 정박과 대국해 이김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고, 계속해서 국수로 이름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실력을 겨루어 최고의 고수로 인정받았다. 정운창은 당시 국수인 김종기를 꺾은 뒤에도 그의 명성을 지켜주기 위해 배려했으며, 최고가 된 후 20년간이나 바둑계를 제패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시골 약골의 ‘대승공기’라 할 수 있다.

여기 소개된 파란만장한 인생 서사시 10편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자기 삶을 가꾸어간다면 오늘날과 다른 내일을 일구어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저자는 “이들을 부러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벤치마킹하는 기회로 삼아보자. 그러면 그들의 삶이 내 삶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의 신나는 인생여정이 내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들의 삶을 나의 내일을 위한 지도로 삼아 다시금 새 길을 가보자”고 권한다.

(역사의 아침·1만3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현대문학 등단 젊은 작가들의 단편집

피크 이기호 외 5인 지음

월간 ‘현대 문학’을 통해 등단한 젊은 작가들의 단편집은 ‘피크’가 출간됐다. 이번 단편집에서는 특목 뛰는 감성과 유머스러운, 진중함, 기교함 등을 갖춘 다양한 성향의 작가들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갈망집광 하다 내 이러저러 알았지’의 작가 이기호(광주대 교수)가 쓴 ‘내겐 너무 윤리적인 팬티 한장’은 군대에서 막 제대한 한 남자가 ‘팬티’ 때문에 큰일 날뻔한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리고 있으며 명지현의 ‘목표는 머리 끄덕이는 후배와 바람난 남자 친구에게 일격을 가하는 여자의 모습’이 흥미로운 작품이다. 그밖에 태기수의 ‘파충류’, 김서령의 ‘이별의 과정’, 양유정의 ‘유학산’, 김이은의 ‘잃어버린 몸을 찾아서’, 김설아의 ‘청년 방호식의 기름진 반생’ 등 모두 10편의 소설이 실려 있다.



(현대문학·1만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미술작가들의 창의력은 어디서 오는가

리더를 위한... 이주현 지음

미술 전문 필자 중 가장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이주현씨가 이번에는 ‘창의력’을 주제로 한 책을 펴냈다. 이씨가 펴낸 ‘리더를 위한 미술 창의력 발전소’는 LG 그룹, 삼성경제연구소 등에서 ‘미술과 창의력’을 주제로 강의한 내용을 모티브로 삼은 책이다. 미술작품과 창의력이 어떤 관계가 있는 지 다양한 작품을 통해 알기 쉽게 풀어쓴 책은 창조란 즐기고 누리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생각 발전소’, ‘행동 발전소’, ‘창조 발전소’ 등 3부작으로 구성됐다. 또 ‘갤러리 토크’에서는 모딜리아니, 샤갈, 피카소, 렘브란트, 마그리트, 등 낯다른 창의력을 보여준 미술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이 탄생하게 된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위즈덤하우스·1만5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내 인생 한편의 책

유병률 ‘딜리셔스 샌드위치’

‘서른 살 경제학’의 저자 유병률 기자가 뉴욕에서 문화 에세이를 보내왔다. 그는 지난 1년여 동안을 구글 뉴욕지사에서 찰시켈리 창고, 월스트리트에서 샌트랄파크까지 운동하곤 조여 매고 살살이 뒤지고 다녔다. 그리하여 왜 문화가 밥 먹여 주는지를 뉴욕에서 찾았다.

분량이 210페이지밖에 안 되는 이 책은 현장감이 넘치고 책 제목부터가 흥미롭다.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으면서 미술관, 공연장을 즐겨 찾는 뉴욕커들을 보면서 뉴욕커들은 왜 이렇게 살까를 생각하다가 붙인 책 제목이 ‘딜리셔스 샌드위치’이다.

책에는 돈만 많았던 뉴욕이 문화와 예술의 메카로 탈바꿈한 성공신화가 소개됐다. 2차대전 이후 뉴욕은 세계 최고의 부를 가졌지만 문화적으로는 파리와 런던과 같은 격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뉴욕은 남다른 전략을 세웠다. 그 전략은 뉴욕의 ‘피카소’

‘문화 경쟁력을 찾자’



소’를 만드는 것이었고 그 주인공이 ‘추상 표현주의’ 화가 잭슨 폴록이다.

여기에는 록펠러 같은 기업가들, 미술평론가 그린버그 그리고 CIA까지 적극 지원했다. 그 결과 뉴욕은 현대미술의 메카로 자리 잡았다.

미술만이 아니다. 공연도 마찬가지이다. 브로드웨이, 링컨 센터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오페라, 발레는 늘 성황을 이룬다. 심지어 한 극장에서 20년 이상 같은 뮤지컬이 계속 공연되기도 한다.

이렇듯 뉴욕은 돈을 투자하여 문화 예술을 만들고, 그 문화 예술이 다시 돈을 벌어들이는 경제와 문화의 선순환 구조를 이룩했다. 또 애플의 아이폰을 통해 제품을 파는 기업이 아닌 라이프 스타일과 감성, 즉 문화를 파는 비즈니스 세계로 다녔다.

이밖에 샌드위치 직장이 ‘딜리셔스’하기 위해서는 문화경쟁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문화는 또 하나의 노후대비이며, 가장의 문화수준이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 책은 ‘문화가 밥 먹여준다’는 것이다. 앞으로 국가, 도시, 기업, 개인의 경쟁력은 경제가 아니라 문화다. 저자는 힘주어 말한다. 중국에 쫓기고 일본은 따라 잡기 힘든 ‘샌드위치 한국’의 탈출구는 문화경쟁력을 찾는 것이라고.

광주에서 근무한 지가 두 달이 되었다. 그동안 이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뉴욕과 광주를 비교하여 본다.

지금 광주는 문화수도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외치고 있다. 그러면 광주는 ‘광주의 피카소’를 만들고 있는가? 광주에 20년 이상 공연되는 뮤지컬이나 국악이 있는가? 광주의 경제가 문화를 만들고, 광주의 문화가 다시 경제를 살찌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아무튼 이 책은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 특히 문화수도 광주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는 정치인, 공무원, 기업인, 문화예술인들에게 일독을 권유한다.

김세근(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제18회시험 전국최다합격자 배출 전국 수석합격자 배출 (현대한48세·최영아31세) 전국 최강 교수진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TV강의 교수진! 10월 26일 시험대비 시책특강 10월 26일 시책특강 시책에 나오는 테마 9월 16일 ~10월 5일 2009년도 시험대비반 10월 6일 ~10월 18일 현재접수중 개강 11월 3일 첫진도 시작반 (주·야) 연회원 수강신청시 수강료 20% 할인혜택(50명) 주부반·성인반·국비무료 교원 재직자반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

7.9급 공무원 합격강좌 =전통47년!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명교수진의 환상의 강좌(직접확인요)= '09년 공무원 연령상한제지료 아줌마, 아저씨들의 열풍. 30~40대 주부특별반강좌 10월4일 10시 합격 설명회! 늦었지만 나도 공무원이 될수 있다. '09년 시험은 지금부터 개강 10월 6일(주·야간반 모집) (현재예약접수중) 합격 회원 모집 6개월: 90만원(교재17만포함) 주·야간반+기초(공·영)무료특강 ※수강료가 저렴, 필수합격 확신함. =「無等」은 「공」合格 獲수 있다는 確信을 드립니다! = 考試의 名門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222-4560

웰빙시대 최고의 유망자격증 우리농산물 지킴이 농산물품질관리사 현재 상담 접수중 - 주말반- 국가공인 5회시험 수강료 국가 지원 - 초기자격으로 최고의 유망자격증 - 농산물품질관리법 29조의7에 의해 고용시설에 농림부 자금 지원 시 협: 1차) 11월 23일 / 2차) 2월 22일 고용보험 가입자 수강료의 80% 환급 49명 선착순 조기마감 유의 자격취득자 100% 전원 취업완료!!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건너편 (062)236-2468